

저승 서사로 보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

- 《太平廣記·再生》을 중심으로 -

강 종 임*

〈目次〉

I. 들어가는 말	IV. 저승에 대한 물질적 상상
II. 저승에 대한 공간적 상상	V. 나오는 말
III. 저승에 대한 감정적 상상	

I. 들어가는 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물음과 통한다. 두 물음의 밑바닥에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¹⁾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특히 사후 세계는 문화와 종교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가 아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되는 공간인 까닭에 객관적인 입증은 물론 존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적 장소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승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비현실적 공간도 없을 정도로 문헌 자료나 시각 자료 속에 하나의 전형으로 구축되어 있다.³⁾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이강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81쪽.
 2) 황예진·조용상, 〈전통 서사에 반영된 저승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 영화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의 문화연구》 제7권, 2019, 29쪽.
 3) 김정숙, 〈韓中 저승 체험담 속 저승 묘사와 사상적 경향 비교〉, 《민족문화연

저승에 대한 상상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상은 다양한 서사들로 변용되거나 모티프로 사용되어 훌륭한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 사후 세계를 모티프로 한 콘텐츠들은 영화나 드라마⁴⁾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몇 년 간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에서도 빈번히 재현되고 있다.⁵⁾ 다시 말해서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다루고 있는 서사들이 육신과 영혼, 윤회와 회생, 그리고 저승과 지옥과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들 작품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사는 세상, 즉 망자의 혼백이 돌아가는 장소인 저승이다.

중국 고대의 판타지 서사 가운데 저승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겪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적인 관점의 임사 체험과 유사한 일이 중국 고대의 저승 서사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문학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다.

《태평광기》 권375~권386 〈再生〉 편에는 사후 세계에 관련된 이야기 128가지가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죽음을 맞은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과정,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 망자의 영혼이 겪은 저승에 대한 체험, 그리고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온 망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구》 59호, 2013, 347쪽.

- 4) 구체적인 예로 <49일>(2011), <오 나의 귀신님>(2015), <도깨비>(2016), <신과 함께>(2016, 2018), <회생부활자>(2017), <호텔 델루나>(2019), <경이로운 소문>(2020) 등이 있다.
- 5) ‘환생’과 ‘회귀’는 웹소설을 자주 찾는 이들이 향유하는 일종의 문화코드이다. 굳이 윤회설을 믿지 않아도 스마트 폰을 켜고 웹소설 플랫폼에 입장한다면 그 첫 회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간접적인 죽음과 부활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웹소설 플랫폼 상 존재하는 수만 편의 웹소설 중 적어도 사분의 일 정도가 ‘환생’과 ‘회귀’의 모티프를 따르고 있다.(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미래연구》 제4권, 2019, 155쪽.)

있다. 저승이라는 개념이 온전히 인간의 상상에서 근거한 것인 만큼 거기에는 분명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망자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Ⅱ. 저승에 대한 공간적 상상”에서 《태평광기·재생》에 실려 있는 저승 서사를 통해 고대 중국에서 영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그 영혼이 존재하는 공간을 어떤 형태로 파악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Ⅲ. 저승에 대한 감정적 상상”에서는 죽은 지 16일 후에 다시 살아난 王掄과 죽었다가 하룻밤 만에 되살아난 索盧貞이 저승에서 겪은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Ⅳ. 저승에 대한 물질적 상상”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데 필요한 紙錢에 숨겨져 있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저승에 대한 공간적 상상

8세기 경 티베트의 파드마삼바바가 사후 세계를 보고 돌아와서 죽음과 그 이후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떨어지며, 망자는 거대한 미망의 세계에 직면해서 극도로 낮은 환경에 처해 온갖 초조함을 느낀다고 한다.⁶⁾

그 기록은 망자가 죽음 이후의 처해지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추측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죽음은 그저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이다.

6) 파드마삼바바 지음, 장홍스 풀어썬, 장순용 옮김, 《티베트 사자의 서》, 서울: 김영사, 2008, 24쪽.

그런데 《태평광기·재생》에 기재된 여러 이야기에서는 죽음을 맞게 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저승으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뜻밖의 현상이 될 수 있다.

그(왕륜)는 처음에 병이 심해져 막 숨이 넘어가려 할 때에 두 사람에게 잡혀갔는데 정신이 아득하여 인간 세상이라니 했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몰랐다. 잠시 뒤 커다란 성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삭방절도사 李林甫를 만나 서로 절을 하면서도 생시일 것이라 생각했다.⁷⁾

죽음을 맞이한 망자 왕륜이 저승사자에 의해 저승으로 인도되는 과정은 저승서사의 전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정신이 아득’하다는 표현은 中陰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잠시 혼미한 상태가 나타나며 나중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윤회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바로 중음이다.

이 기간 동안 죽은 자는 마음에서 나온 기이한 환상을 느끼면서 일종의 환각을 거친다.⁹⁾ 물론 왕륜이 성문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겪게 된 일들은 어쩌면 중음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상이나 환각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망자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그다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승에서의 일상이 그대로 연계되는 중국의 저승관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⁰⁾

7) 《太平廣記·再生五》〈王掄〉: 初疾亟屬纊之際, 見二人追去, 恍惚以爲人間, 不知其死也. 須臾入大城門, 見朔方節度李林甫, 相見拜揖, 以爲平生時也.(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권16, 서울: 학고방, 2004, 126쪽.)

8) 中陰은 한 장면의 ‘완성’과 다른 한 장면의 ‘시작’ 사이의 과도적인 상태나 간격을 가리킨다. 이는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의식이 육체를 이탈하는 특수한 광경을 서술할 때 사용되는데, 이 상태는 마치 의식이 육체를 ‘내버리거나’ ‘허공에 걸려있는’ 것과 같다.(파드마삼바바 지음, 장홍스 풀어씀, 장순용 옮김, 앞의 책, 30쪽.)

9) 같은 책, 32쪽 참조.

또한 병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도 이승에서의 육신의 고통은 묘사된 바가 없다. 이는 곧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영혼을 육체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전통은 선사시대 이래 지속되는 매장문화나 제사 등의 의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적 사고뿐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육체를 떠난 ‘혼백’에 대한 관념은 현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혼백 관념이 반영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목주사마 위연지는 이질을 앓았다. 여름날 그가 혼자 대청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자가 나타나 말했다.

“장관께서 당신을 잡아오라고 하십니다” <중략> 위연지의 몸은 침대 앞에 있었으나 영혼은 이미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¹¹⁾

저의 몸과 머리도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저의 혼백은 어디선가 꾸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관부의 순찰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관리는 저의 앞에 이르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찌하여 죽여서 데리고 왔느냐?”¹²⁾

위연지의 이야기는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가는 위연지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침대에 있는 육신과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영혼을 의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

10) 우리나라는 저승과 이승을 단절적으로 사고하여 저승사자나 저승으로 가는 여정, 저승 속 인물들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 표현을 했다면 중국은 저승과 이승을 쉽게 교류하는 공간 즉 일상적 저승으로 여겨 이들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김정숙, 위의 논문, 345쪽.)

11) 《太平廣記·再生六》〈韋延之〉：陸州司馬韋延之，患痢疾，夏月獨寐廳中，忽見二吏云：“長官令屈。”〈中略〉延之身在牀前，神乃隨出。(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156쪽.)

12) 《太平廣記·再生二》〈五原將校〉：其身首異矣，至日入，但魂魄覺有呵喝，狀若官府一點巡者。至某，官怒曰：“此人不合死，因何殺却?”(같은 책, 25쪽.)

으며 이런 영육의 분리과정은 현재에도 죽음의 순간을 다룬 많은 장르 속에서 빈번히 재현된다.

그 아래의 인용문은 오랑캐의 기습을 받아 참수되었다가 살아난 장교의 이야기인데 죽은 후에도 ‘혼백’이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식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매커니즘은 티베트 불교에서 중음에서 해탈을 얻는 방식으로 ‘들음’을 듣고 있는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¹³⁾ 즉 육체는 물리적으로 사망했으나, 청각 등의 감각은 어느 순간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의식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⁴⁾

戰國시기에서 漢代에 이르는 여러 기록에는 혼백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혼기(魂氣)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¹⁵⁾

하늘의 기운이 혼이고, 땅의 기운이 백이다. 근원으로 돌아가 각기 그 집에 머무는 것이다.¹⁶⁾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가 모여서 되는 것이다. (기가) 모여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¹⁷⁾

13) ‘들음’의 핵심적인 절차는 귀 기울여 듣는 방식이니, 망자의 곁에 있는 스승이 읽어주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며 이것이 해탈의 마지막 방법이다. 이를 통해 죽음 후 육신을 떠난 망자의 영혼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방증할 수 있다.(파드마삼바바 지음, 장홍스 풀어쓰, 장순용 옮김, 앞의 책, 34~35쪽.)

14) 최근 미국의 섀 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로 소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심장의 활동이 정지된 사람들은 뇌의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인 ‘대뇌 걸질’이 심장이 멈춘 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지속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장이 정지된 후 ‘임상적인 죽음’에 있는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희은, <내가 죽은 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코메디닷컴, 2022.03.01.)

15) 《禮記·郊特牲》: 魂氣歸于天, 形魄歸于地.(池載熙 解譯, 《禮記》中, 서울: 자유문고, 2000, 117쪽.)

16) 《淮南子·主術訓》: 天氣爲魂, 地氣爲魄, 反之玄方, 各處其宅.(國學整理社 編, 《諸子集成》七, 北京: 中華書局, 2006, 127쪽.)

이 당시 죽음은 흔히 돌아간다(歸), ‘흩어진다(散)’와 같은 용어들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이후 중국의 전통적인 죽음관으로 자리잡는다. 죽음을 ‘돌아가감’, ‘흩어짐’이라고 할 때 이 죽음은 일차적으로 혼백의 분리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혼백의 이원론적인 구조상 각기 양과 음에 속하는 혼과 백이 돌아가야 할 근원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혼백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을 지칭하는 말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늠하는 관건이 된다. 즉 인간의 생사가 바로 이 혼백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혼백은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이 둘의 결합은 해체되고 각기 둘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때 음의 성질에 속하며 육체를 관장하는 백은 땅으로 내려가 귀가 된다. 반면 양의 성질에 속하며 정신을 관장하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된다.¹⁸⁾

그렇다면 사람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일까?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은 땅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일까?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라는 생각은 저승을 지하의 세계로 묘사하는 고대 그리스의 저승 관념과 대비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 하데스는 지하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며, 여기서의 지하 세계는 곧 저승 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저승 세계는 대지의 아래에 있으면서 대지가 새로운 생산의 힘을 길러 내는 원천이기도 하다.

물론 동양에서 죽음과 연관된 황천이라는 단어는 분명 지하와 연상된다. 黃泉은 ‘황천지하’, ‘泉下’라고도 이르며, 이는 저승의 세계를 황천의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 망자는 사후에 지하 세계로 가며 지하 세계에서는 太山府君, 土伯 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저승에서도 계속 살아갈 공간 곧 陰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묘지를 구입한다는 일종의 상징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¹⁹⁾

17) 《莊子·知北遊》: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爲死.(장자 지음, 이석호 옮김, 《장자》, 서울: 명문당, 2020, 727쪽.)

18) 박지현, <중국의 영혼관념과 혼백설>, 《중국문학》 제38집, 2002, 37쪽.

19) 정재서, <중국 시애설화의 유형 및 문화적 의미>, 《도교문화연구》 제43집,

그런데 또 한편 여러 祭儀를 통해 불 때 저승의 세계를 지하가 아닌 하늘 위로 보는 관점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사 등의 의식을 치른 후 衣物을 태우는 것은 하늘로 날려 보내는 행위이고, 이는 곧 혼을 신의 세계로 보내는 것을 상징한다.²⁰⁾ 또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부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招魂²¹⁾의 의례를 보더라도 영혼이 지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며 하늘로 올라간다는 관념 역시 일반적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태평광기·재생》에서도 사망 후 망자의 영혼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 보다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禱陽스의 표현들이 더 많다. 아래에 인용된 다섯 가지 이야기는 저승이 이승보다 공간적으로 높은 곳에 존재한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손희박은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족들과 작별했으며, 스님을 모셔와 佛事를 행하면서 불상을 주조하고 불경을 베껴 썼다. 6~7일이 지났을 때 손희박의 꿈에서 이전에 만났던 귀신이 와서 부르더니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중략〉 그리고는 손희박을 떠밀어 산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리하여 손희박은 놀라 깨어났다.²²⁾

2015, 331쪽.

- 20) 구미래, 〈중이접기로 만든 신위(神位), 지방과 지의〉, 《불교미술사학》 제28집, 2019, 685쪽.
- 21) 초혼이란 말 그대로 혼을 부르는 행위이며 梟復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임종하면 시체를 안치한 후 상주가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 이웃에 알리는 의례로서 發喪을 시작하기 전 죽은 이의 혼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 손은 허리춤에 찌고 마당이나 지붕 위에서 북쪽을 향해 고인의 이름을 세 번 외친다. 이렇게 하면 죽은 이의 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는데,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장례를 준비한다.(강대현, 〈招魂에 나타난 무속의 변증법적 사생관〉, 《밀교학보》 제19집, 2018, 208~209쪽.)
- 22) 《太平廣記·再生三》〈孫迴璞〉: 璞自以必死, 與家人訣別, 而請僧行道, 造像寫經, 可六七夜, 夢前鬼來召, 引璞上高山, 〈중략〉 即推璞墮山, 於是驚悟.(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58쪽.)

등엄은 죽은 지 이미 몇 년이나 되었다. 그 휘하에 장고라는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돌연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는 갑자기 죽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듯이 한 관청에 도착했는데, 등엄이 자신을 보고는 기뻐했다. <중략> 장고는 황급히 이끌려 돌아오다가 구덩이에 떨어져서 깨어났다.²³⁾

호득은 용안 3년(399) 겨울에 죽었다가 사흘밤 만에 다시 살아났다. <중략> “하계에서 보내왔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잡아 왔으니 그냥 받아 두십시오.” <중략> 이때 그는 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자신의 코를 막아 놓았던 흙을 뜯어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이승으로 돌아왔다.²⁴⁾

회계 산음 사람 하우는 자가 언거이다. 그는 일찍이 병을 얻어 사람도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는데, 오직 가슴 아래만은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했다. “저승관리가 하우를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가니 저승 관부가 나왔다.”²⁵⁾

당나라 측천무후 시대에 지관낭중 주자공이 갑자기 죽었다. 주자공은 죽은 뒤 천제가 전당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배자의가 천제를 옆에서 모시고 서 있었다. <중략> 천제가 말했다. “내가 허자유를 불러오라 했는데 어찌하여 주자공을 잘못 잡아 왔느냐? 즉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리하여) 주자공이 살아났다.²⁶⁾

23) 《太平廣記·再生四》〈鄧儼〉：鄧儼，先死數年。其案下書手蔣古者，忽心痛暴卒。如人捉至一曹司，見鄧儼喜。〈중략〉蔣草草被領還，隕一坑中而覺。(같은 책, 86쪽.)

24) 《太平廣記·再生九》〈胡勒〉：胡勒，以隆安三年冬亡，三宿乃蘇。〈중략〉“下土所送，已攝來到，當受之。”〈중략〉於是見人以杖挑其鼻土印封落地，恍惚而還。(같은 책, 259쪽.)

25) 《太平廣記·再生十》〈賀瑀〉：會稽山陰賀瑀，字彥琚。曾得疾，不知人，惟心下尚溫，居三日乃蘇。云，吏將上天，見官府。(같은 책, 265쪽.)

26) 《太平廣記·再生十》〈周子恭〉：唐天后朝，地官郎中周子恭，忽然暴亡。見大帝於殿上坐，裴子儀侍立。〈중략〉帝曰：“我喚許子儒，何為錯將子恭來，即放去。”子恭蘇。(같은 책, 287쪽.)

이 이야기 중에서 산 아래로 떨어져서 깨어난 손희박, 구덩이에 떨어져서 깨어난 등업, 그리고 코를 막았던 흙을 뜯어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승으로 돌아온 호륙의 행위는 바로 저승이 공간적으로 이승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천상에서 저승 관부를 보았다는 하우의 목격담과 저승에 잘못 잡혀 왔다가 이승으로 돌아온 주자공의 경험담을 통해서 고대 중국인들은 사후에 지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자의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제가 주재하는 천상으로 간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저승에 대한 감정적 상상

저승의 세계는 온전히 판타지의 영역이지만 그 형상은 현실적 인식에 기초한다. 대표적인 예로 저승을 지칭하는 ‘冥府’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府’는 이승의 官府와 같은 개념인데, 즉 저승에 대한 상상이 현실에서 입각한 것이다.

《태평광기·재생》에는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가 관복을 입고 관직에 제수되며 축하연이 열리고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승에서 일어날 만한 관가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승에서 펼쳐지는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인간 세상과 똑같았다.”²⁷⁾라는 묘사는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저승과 이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이지만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죽음으로 인한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인간의 감정적인 상상을 초래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기는 했으나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승과 이승의 연결은 반드시 모종의 매개체를 통해서

27) 《太平廣記·再生四》〈貝禮〉：一同人間.(같은 책, 87쪽.)

이루어진다.

물론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존재인 저승사자²⁸⁾가 그 대표적인 매개자이지만 여기서는 저승사자보다 現夢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가 대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저승의 망자와 이승의 인간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함을 볼 수 있다.

(왕륜은) 잠시 후에 당에 올라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죽었으나 3천 관 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소.”

그날 저녁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창문 사이로 갑자기 획 하는 물건의 소리를 들었으며 개들 역시 그 소리 때문에 짖어댔다. 날이 밝자 아내가 울며 말했다.

“꿈에 남편이 나타나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돈 3천 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잘라 돈으로 만들고 무당을 불러 그것을 태웠다.²⁹⁾

고대에 꿈은 수면 중에 신체에서 유리한 혼백이 외계와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었다. 즉 혼과 낮이 육신을 떠나 정신이 왕래하는 것이고, 음양이 감응하여 길흉의 응험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이런 관념은 신체를 이탈한 혼백이 원격지에 나타나서 본인으로서 활동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오거나 타인에게 빙의한다는 괴이담을 낳았다.³⁰⁾

일찍이 점몽 이론을 정리한 漢代 王充 역시 “점몽가들은 꿈이 사람들의

28) 저승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명이 다한 사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수명을 정해주는 것이었고 명계의 조직에서 하층 관리에 해당한다.(송진영, <중국고전소설 속에 묘사된 저승사자 명칭과 형상에 관한 고찰 -《太平廣記·鬼部》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56집, 2016, 71쪽.)

29) 《太平廣記·再生五》 〈王掄〉: 斯須而升堂告妻曰: “我已死矣, 若得錢三千貫, 卽再生.” 其夕, 畢家咸聞窓牖間, 窅然有物聲, 犬亦迎吠, 卽明, 其妻泣言: “夢掄已死, 求錢三千貫.” 卽取紙剪爲錢財, 召巫者焚之.(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의 옮김, 앞의 책, 127쪽.)

30) 종교학사전 편찬위원회,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건연구소, 1998, 1489쪽.

영혼이 활동하는 것”³¹⁾이라고 하였다. 육신을 떠난 영혼의 여정이 꿈을 만들어낸다는 이러한 夢魂 관념은 고대에는 하늘의 계시로 여겨지거나 선조나 망자, 귀혼 등이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예시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사람과 귀신 사이의 감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언제나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것이었다.

저승 서사들 가운데 ‘현몽’의 설정은 많은 경우에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에 아주 유용한 기제가 된다. 즉 억울하게 죽은 망자가 죽음의 내막을 알리기도 하고, 이승의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나 갈등에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현실적 설정은 그것이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왕윤의 이야기는 저승에서 6년 전 죽은 형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저승에서 만난 형에게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3천 관을 얻으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에 왕윤은 저승에서 잠시 이승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그 과정에서 왕윤 스스로 꿈을 의식하는 상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창문 사이로 갑자기 획 하는 물건의 소리’나, ‘개들 역시 그 소리 때문에 짖어댔다’는 표현을 통해 독자는 현상계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 영혼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왕윤의 영혼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아내의 꿈을 통해 드러난다. 이처럼 현몽을 통해 망자의 영혼이 그 뜻을 전한다는 구조의 이야기는 고대의 판타지 서사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등장한다.

이미 사망한 고인을 꿈에서 보는 경우는 지금도 매우 흔한 일이다. 중국 고대에 논의되었던 꿈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상념으로도 충분히 꿈을 꿀 수 있지만³²⁾, 고인의 영혼이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할 것

31) 《論衡·紀妖篇》: 人之夢也, 占者謂之魂行。(國學整理社編, 《諸子集成》 七, 北京: 中華書局, 2006, 215쪽.)

32) 정신이 대하게 되는 것이 꿈이고, 형체가 접하게 되는 것이 일이다. 그러므로 낮에는 생각하고 밤에는 꿈을 꾸는데 정신과 형체가 일이나 물건을 대하게 되기 때문이다.(《列子·周穆王》: “神遇爲夢, 形接爲事, 故晝想夜夢, 神形所遇.” 열자 지음, 김학주 옮김, 《열자》, 고양: 연암서원, 2011, 159~161쪽.)

이며 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환상성을 더해준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승과 저승 간의 소통은 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태평광기·재생》에는 망자가 저승에 가서 자신보다 먼저 죽은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대다수의 경우 죽었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는 주인공은 저승에서 만난 이들의 이런저런 사연들을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예로 索盧貞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난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후 저승에서 만난 지인의 도움으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길에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옛 이웃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그 이웃은 색로정이 이승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자 간곡히 부탁을 한다.

“경계서 만일 돌아가시거든 내 아내에게 말 좀 전해주시오. 내가 죽기 전에 돈 만 오천 냥을 집 가운데 있는 커다란 평상 아래에 묻어 놓았었소. 원래는 딸에게 팔찌를 사주려고 했던 것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죽는 바람에 아내와 딸에게 말도 못 했소.”³³⁾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을 소재로 한 여타의 이야기들처럼 여기에도 주인공인 색로정은 저승에서 어떤 사실을 전해 듣고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을 전한다. 전체적인 구성으로만 본다면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 이야기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겨를도 없이 죽어 이승을 떠난 영혼을 상상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다가온다.

색로정에게 말을 전해달라던 그 이웃은 아마도 갑자기 죽음을 당했을

33) 《太平廣記·再生九》〈索盧貞〉: 卿歸, 爲謝我婦. 我未死時, 埋萬五千錢於宅中大牀下. 我乃本欲與女市釧, 不意奄終, 不得言於妻女也.(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256쪽.)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딸에게 팔찌를 사주려고 묻어두었던 돈의 존재를 알리지도 못했고, 당연히 딸에게 팔찌를 사주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듯하다. 어떤 이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죽어서도 내내 마음에 두고 아파할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딸에게 끝내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사랑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다. 그저 담담히 이승의 아내에게 전하는 말이 서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별안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과정에서 그 영혼이 느꼈을 당혹감과 안타까움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두렵고 안타깝다. 더구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면 미처 하지 못한 말이나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저승으로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죽음은 매우 두렵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소재로 한 다양한 서사들을 만든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인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때문일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단지 이승이라는 시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동안 맺은 모든 관계인 것이다.

IV. 저승에 대한 물질적 상상

《태평광기·재생》의 저승 서사 가운데에는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데 필요한 紙錢에 대한 묘사가 많다. 지전은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 종이돈으

로 의례적·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인 화폐이다. 흔히 지전은 죽은 자가 저승길에 가져가는 노잣돈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무덤에 함께 매장하는 明器로 폐백을 대신한 것이었다.

지전의 기원은 殷나라 때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막연하게 고대로 표현하고, 漢代에 와서 실제 금속류 화폐인 錢을 사용하다가 이후 국가의 제재로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종이는 東漢의 蔡倫(50~121)에 의해 만들어졌고 지전은 魏晉 시기나 또는 唐의 王璵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보건대 종이를 지전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 시기는 대략 3~5세기 무렵이고 이것을 제사 의식에 사용하게 되면서 성행하게 된 시기가 대략 7~8세기 무렵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다.³⁴⁾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지전은 불교의식에 편입되기도 하는데 특히 불교의 선종에서는 지전을 많이 이용하여 기도하고 우란분회 때에 반야심경과 말을 그린 經馬와 함께 지전을 법당에 걸고 법회가 끝난 뒤에 귀신을 위해 이를 銅鉢 안에 담아서 태웠다고 한다. 일설에는 사자의 죄업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자는 저승길에 지전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갖다 바쳐야 한다고 전해진다.³⁵⁾ 민간의 이러한 관념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귀신에게 주는 재물을 태울 때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어떤 신령에게 돈을 보내주려고 할 경우 먼저 지전 32장을 태워 오도장군에게 구하면 그 신령이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상시처럼 향을 태운다면 대부분은 도착하지 못합니다.³⁶⁾

34) 최진아, <지전의 유래와 의미의 다양성>, 《역사민속학》 제45집, 2014, 231~235쪽.

35) 慈怡 主編, 《佛光大辭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4277쪽.

36) 《太平廣記·再生六》〈鄭潔〉: 每燒錢財, 如明旦欲送錢與某神祇, 卽先燒三十二張錢, 以求五道, 其神祇到必獲矣. 如尋常燒香, 多不達.(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170쪽.)

오도장군은 불교와 도교에 모두 나타나는 신으로 인간의 생사를 관장한다.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신에게 지전을 태워 기원한다는 것은 죽었다 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³⁷⁾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³⁸⁾ 등을 의미한다.

관리가 또 금전과 은전을 각각 3천 관씩 마련해 달라고 하자 배령이 말했다. “저는 빈궁하여 사실상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없소이다.”

관리가 말했다. “금전은 인간 세상의 누런 지전을 말하고 은전은 흰 지전을 말하지요”³⁹⁾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저승에서 요구되는 돈의 액수는 1천 냥, 3~5만 냥, 3천 관 등 상당히 크다. 인용된 내용에서도 저승의 관리는 거액의 지전을 부담스러워 하는 주인공 배령에게 지전이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돈을 요구받은 영혼 역시 저승에서 요구하는 지전이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지전이 저승에서는 현실세계의 화폐처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저승사자, 혹은 저승 관리라고 표현되는 존재와의 약속일지언정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다음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사람이 와서 문지기에게 말했다.

“문을 열어 어제 그 죄인을 놓아주어라”

그리고는 곧장 사람을 시켜 제사망을 돌려보내게 했으나 사자는 길이

37) 《太平廣記·再生五》〈王掄〉: “我已死矣, 若得錢三千貫, 卽再生.(나는 이미 죽었으나 3천관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소.)”(같은 책, 127쪽.)

38) 《太平廣記·再生七》〈裴齡〉: “爲設齋度, 我卽得生人間.(내 혼령을 천도해 준다면 나는 즉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소.)”(같은 책, 193쪽.)

39) 《太平廣記·再生七》〈裴齡〉: 吏復得金銀錢各三千貫. 齡云: “京官貧窮, 實不能辦.” 吏云: “金錢者, 是世間黃紙錢. 銀錢者, 白紙錢耳.”(같은 책, 193쪽.)

너무 멀다고 핑계를 대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제사망을 보내주지 않았다. 사자가 돈과 비단을 달라고 하자 제사망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중략> 제사망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자가 그를 떠미는 바람에 마침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났다.

제사망은 곧장 지전을 마련하여 (자신을 데려다 준) 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사자는 약속한 날짜에 다시 왔는데 제사망의 부인도 함께 그를 보았다.⁴⁰⁾

양승은 주송을 잡아온 자를 시켜 그를 배웅하게 했다. 몇 리를 갔을 때 그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날더러 너를 데려왔다 데려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또한 나의 노고를 조금도 알아줄 줄 모르니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만약 5천 관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내 너를 돌려보내 주겠다.”

주송이 말했다.

“지전 5천 관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⁴¹⁾

이 두 이야기에서는 저승에서 이루어지는 저승사자와 망자의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거래를 다루었는데 특히 저승의 하층관리인 저승사자의 역할에 대한 묘사가 흥미롭다. 저승사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명이 다한 사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거나,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제사망의 이야기에서 저승사자는 사자를 돌려보내라는 관부의 명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한다. 사자는 제사망에게 돈과 비단을 요구하고 약조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제

40) 《太平廣記·再生八》〈齊士望〉：有人命門者曰：“開門，放昨日罪人出。”即命人送歸，使者辭以路遙，遷延不送之，始求以錢絹，士望許諾，〈中略〉士望懼之，使者推之，遂入坑內，不覺漸蘇，尋乃造紙錢等待焉，使者依期還到，士望妻亦同見之。(같은 책, 236쪽.)

41) 《太平廣記·再生八》〈周頌〉：乘令迫人送頌，行數里，其人大罵云：“何物等流，使我來去迎送如是，獨不解一言相識，獨恩若是！如得五千貫，當送汝還。”頌云：“紙錢五千貫，理亦辦”因便許之。(같은 책, 247쪽.)

사망을 이승으로 돌려보낸다.

또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잡아온 영혼을 다시 이승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에 버럭 화를 내며 사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망자를 잘못 데려온 것은 명부의 실수이지만 데려갔다가 데려오는 수고로움을 고스란히 짊어 져야 하는 저승사자의 불만스러움이 잘 드러나 있다. 잔뜩 화가 난 저승사자를 달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지전의 용도가 빛을 발한다.

이쯤 되면 저승사자는 이미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저승사자의 실수나 재량권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⁴²⁾이자, 태만함과 불만, 짜증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매우 인간화된 존재로 전환된다. 저승의 관리도 이승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저승을 이승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繼世的 사후 세계관의 반영이다.⁴³⁾

저승사자가 실수도 하고, 뇌물로 지전을 챙기기도 하며,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신적 존재이기보다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죄업에 대한 경감을 기대하는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저승사자의 역할에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전이 저승사자의 마음을 돌리거나 죄를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의 지전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존재한 지전의 의의는 지금의 중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저승용 돈을 뜻하는 지전이 망혼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통용되거나, 이때의 지전은 종이를 오리거나 접어 사후 존재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것⁴⁴⁾이라는 인식에 비하면 상당히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⁴⁵⁾

42) 송진영, 앞의 논문, 62쪽.

43) 정재서, 앞의 논문, 330~331쪽.

44) 구미래, 앞의 논문, 685쪽.

45) 우리나라에서는 지전이 신령이나 조상신이 머무르는 神主를 대신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제사에 쓰이는 헌물과 명전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즉 저승길에 갈 때 사용될 노잣돈이나 저승에서의 삶을 영위할 때 쓰일 수 있는 경제적인 價値財로 인식되기도 한다.(최진아, 앞의 논문, 258~259쪽 참조.) 이에 비

지전의 화폐로서의 가치는 이승의 돈과 완전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준비한 지전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

왕숙은 다시 살아난 뒤 집안사람들에게 종이 100장을 사오게 하여 돈을 만들어서 그에게 보내주었다. 다음날 왕숙은 또 병에 걸려 죽었는데, 다시 관리가 나타나서 말했다.

“당신이 다행히 나에게 돈을 주었지만 돈의 질이 매우 나쁘오.”

왕숙이 사죄하며 다시 만들게 해 달라고 하자 관리는 허락해 주었다.

왕숙은 다시 살아났다.⁴⁶⁾

세상에서는 도시에서 지전을 만드는데 그 지전은 대부분 명부에서 거두어가고, 그러나 당신은 지전 오리는 사람을 불러와서 집안의 은밀한 방에서 만들어주시오. 다 만들고 나서 자루에 담아 물가에서 태워주면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오. 지전을 받게 될 때 난데없는 바람이 불어와 재를 움직이면 바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냥 바람이 재를 날리면 바로 명부와 지옥의 귀신들이 받아 가는 것이오. 이는 일반 사람들도 알아보는 방법이오. 하지만 귀신은 늘 굶주림에 고통받으니 지전을 태워 줄 때 아울러 맛있는 술과 음식을 조금만 차려주시오.⁴⁷⁾

저승에서 쓰이는 돈이라고 모두 다 같지는 않다. 왕숙의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죽은 자를 위한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 늘 굶주리는 귀신을 위해 지전을 태워줄 때 아울러 술과 음식을 조금

해 본고에서 다룬 《태평광기》에 묘사된 지전의 의미는 수명을 거래하거나 또는 저승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뇌물로 쓰였다는 점에서 훨씬 더 현실적인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6) 《太平廣記·再生六》〈王壽〉：又蘇，壽告家人，買紙百張，作錢送之，明日，壽又病困，復見吏曰：“君幸能與我錢，而錢不好。”壽辭謝，請更作，許之，又蘇(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앞의 책, 144~145쪽.)

47) 《太平廣記·再生七》〈裴齡〉：世作錢於都市，其錢多爲地府所收，君可呼鑿錢人，於家中密室作之，畢，可以袋盛，當於水際焚之，我必得也。受錢之時，若橫風動灰，卽是我得，若有風颺灰，卽爲地府及地鬼神所受，此亦宜爲常占，然鬼神常苦饑，燒錢之時，可兼設少佳酒飯。(같은 책, 193~194쪽.)

만 차려달라는 내용을 통해 중국 고대에는 망자의 영혼이 저승에서도 지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관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 묘사된 것처럼 지전을 만드는 방법이나 지전이 태워지는 양상에 따라 사자가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지전을 태우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승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소망과 더불어 만들어진 물질적인 상상이며, 또 많은 이들에 의해서 수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이상에서 《태평광기·재생》의 저승 서사를 공간, 감정, 물질의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부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승은 지하가 아닌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그것이 이승과의 공간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몹시 닮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둘째, 감정적인 측면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죽음을 기점으로 이승과 저승이라는 다른 두 세계에서 나뉘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양자의 삶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현몽과 같은 연결 고리를 상상함으로써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셋째, 물질적 측면에서 고대 중국인들의 지전에 대한 인식은 망자를 위한 배려였음을 알 수 있다.

저승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산물, 허구의 산물이다. 고대 중국의 저승 서사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다. 죽음은 육체의 생리적 기능을 멈추게 만들고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진다. 그에 반해 영혼은 영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까닭에 사후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양산했다. 《태평광기·재생》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저승 서사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그려 내는 사랑, 미련, 안타까움의 감정, 그리고 욕망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다. 고대 중국인들이 투영해내고자 했던 인간적 염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저승 서사는 아직도 완결을 기다리고 있는 진행형이다.

< 참고문헌 >

- 강대현, 〈招魂에 나타난 무속의 변증법적 사생관〉, 《밀교학보》 제19집, 2018.
- 구미래, 〈종이접기로 만든 신위(神位), 지방과 지의〉, 《불교미술사학》 제28집, 2019.
-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미래연구》 제4권, 2019.
-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서울: 학고방, 2004.
- 김정숙, 〈韓中 저승 체험담 속 저승 묘사와 사상적 경향 비교〉, 《민족문화연구》 59호, 2013.
- 박지현, 〈중국의 영혼관념과 혼백설〉, 《중국문학》 제38집, 2002.
- 송진영, 〈중국고전소설 속에 묘사된 저승사자 명칭과 형상에 관한 고찰-《太平廣記·鬼部》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56집, 2016.
- 열자 지음, 김학주 옮김, 《열자》, 고양: 연암서원, 2011.
- 이강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 장자 지음, 이석호 옮김, 《장자》, 서울: 명문당, 2020.
- 정재서, 〈중국 시애설화의 유형 및 문화적 의미〉, 《도교문화연구》 제43집, 2015.
- 정희은, 〈내가 죽은 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코메디닷컴, 2022.

03.01.

- 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종교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池載熙 解譯, 《禮記》, 서울: 자유문고, 2000.
최진아, 〈지전의 유래와 의미의 다양성〉, 《역사민속학》 제45집, 2014.
파드마삼바바 지음, 장홍스 풀어씀, 장순용 옮김, 《티베트 사자의 서》,
서울: 김영사, 2008.
황예진·조용상, 〈전통 서사에 반영된 저승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 영
화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글로컬 창의 문화연구》 제7권, 2019.
慈怡 主編, 《佛光大辭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89
李昉 등 모음, 《太平廣記》, 北京: 中華書局, 1994.
劉安 著, 《淮南子》, 國學整理社編, 《諸子集成》七, 北京: 中華書局, 2006.
王充 著, 《論衡》(國學整理社編, 《諸子集成》七), 北京: 中華書局, 2006.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narrative of the next world represented in Part “Rebirth” of *Taiping Guangji* by dividing it into spatial, emotional, and material imagination.

In the spatial aspect, the next world was perceived as a space that exists above the sky rather than underground. However, despite the spatial difference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world, from the Chinese view of the next world was also depicted as similar to the real life in this world.

In the emotional aspect, the living and the dead must live in their respective worlds that are divided into this world and the next world by death, but it was found that the ancient Chinese tried to overcome the

fear of death by believing that the two worlds are not permanently separated and imagining links that would connect them in several forms.

In the material aspect, it was considered that the concept of paper money and the use of it for funerals were based on the ancient Chinese's consideration for the dead in terms of a material tribute.

The narrative of the next world discussed in this study is an affirmation of life that continues in any form after death, and a representation of an active worldview that does not consider death as the end of everything. The love, regrets, sorrows, and desires depicted as experienced by the living and the dead in these stories are not new to us today.

Key Words : 태평광기(*TaiPingGuangJi*), 재생(Rebirth), 저승(The Next World), 공간적 상상(Spatial Imagination), 감정적 상상(Emotional Imagination), 물질적 상상(Material Imagination)

